

“故강수연, 세계적 각광 받는 한국 배우의 시초”

외신들 “80~90년대 최고 스타”
베니스 첫 여우주연 등 재조명
빈소에도 이병헌 등 추모 받길
‘여인천하’ 단역연기자 누리꾼
“격려금 줬었다” 글 남겨 몽클



김동호 영화인장 장례위원장과 양익준 감독이 9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고인을 잃은 슬픔을 나누고 있다. 배우 이병헌, 유해진(맨 왼쪽부터)도 빈소에 방문해 조문하고 있다. 사진제공 | 고 강수연 배우 장례위원회

7일 오후 갑작스럽게 56년의 짧은 생을 마감한 배우 고 강수연을 향한 추모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8일 조문이 시작된 고인의 빈소에는 밤늦게까지 영화관계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온라인에서도 고인을 그리워하는 누리꾼들의 애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외신들도 한국영화사에 큰 족적을 남긴 배우를 재조명했다.

● “세계적 각광 한국배우의 시초”

외신들은 “1980~90년대 최고의 무비 스타가 세상을 떠났다”며 고 강수연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특히 고인이 1987년 임권택 감독의 ‘씨받이’로 동아시아 여배우 최초로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사실을 강조하며 그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한국 콘텐츠와 배우들의 시초”였다고 언급했다.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는 고인의 주연작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와 ‘처녀들의 저녁식사’ 등을 언급하며 “1990년대 페미니즘 영화를 통해 당대 한국사회에서 변화하는 여성의 모습을 대변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정이’를 유작으로 남긴 데 대해서도 주목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고인이 갑작스레 세상을 이별한 것을 “비극적인 일”이라고 표현하며 “고인은 ‘정’로 컴백을 앞두고 있었다.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다루는 영화에서 전설의 용병인 로보트의 복제품을 만드는 과학자로 등장할 예정”이라고 자세히 설명했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스트리밍 플랫폼 데뷔를 앞두고 눈을 감았다”며 안타까워했다.

● 배우들의 추모 발길 이어져

고인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강남구 일

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는 9일에도 영화관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8일 오전 조문을 왔던 임권택 감독은 9일 이른 오전에도 가장 먼저 빈소를 찾았고, 배우 예지원은 이를 연속 빈소에서 눈물을 쏟았다. 착잡한 표정으로 빈소에 들어선 배우 김보성은 “고인은 한국영화를 발전시킨 최고의 배우이다. 떠나셨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울적했다.

전날 빈소를 찾은 봉준호 감독에 이어 윤재균·류승완 등 감독들과 이병헌·이선균·장혜진·고수·김유진·김석훈·문소리·김의성·한예리·송윤아·양동근·양익준

·정유미·유해진·심은경·김민중 등 후배 배우들도 유족과 슬픔을 나눴다.

생전 고인과 절친하게 지내온 윤영미 전 SBS 아나운서는 고인과 관련한 미담을 SNS로 전해 누리꾼의 눈길을 끌었다. 그는 고인이 장마 피해를 입은 단골 식당에 수리비 600만 원을 전했다고 돌이켰다.

2001년 고인의 주연작인 SBS ‘여인천하’의 단역 연기자였다는 한 누리꾼은 가마꾼으로 드라마에 출연한 동료들에게 그가 직접 수고비를 건넸다는 글을 남겨 먹먹한 감동을 전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넷플릭스 ‘안나라수마나라’ 사흘만에 ‘글로벌 많이 본 TV쇼’ 4위

말레이시아 등 13개국서 1위
최대 리뷰사이트선 8점 호평



최성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안나라수마나라’가 6일 공개돼 사흘 만인 9일 ‘글로벌 많이 본 TV쇼(프로그램)’ 4위에 올랐다. 미술 소재와 노래를 조화해 이용자들로부터 “신선하다”는 반응을 얻어낸 덕분이다. 이미 한류스타로 자리 잡은 미술사 역 지창욱뿐 아니라 공동 주연한 신예 최성은과 황인엽에까지 전 세계 이용자의 시선이 쏠린다.

세계 최대 리뷰 사이트인 IMDB에서는 700여 이용자로부터 8점의 평점(10점 만점)을 얻었다.

다양한 작품으로 낮익은 지창욱에 대한 관심으로 드라마를 접한 해외 시청자들은 최성과 황인엽에 대한 호기심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극중 각각 가난에 지친 소녀와 부모로부터 성적 압박을 받는 소년을 연기한다. 미술사 지창욱을 만나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꿈에 관한 메시지를 던진다. 10대의 풋풋한 첫사랑 감정도 표현한다. 지창욱 못지않은 분량을 소화하면서 각자의 사연을 현실감 있게 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만큼 데뷔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이들은 ‘안나라수마나라’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

최성은은 2019년 첫 주연 영화 ‘시동’으로 이듬해 춘사영화제 신인상을 수상하며

이름을 알렸다. 지난해 JTBC 드라마 ‘괴물’에서는 신하균과 여진구 등에 밀리지 않는 존재감을 드러내 화제를 모았다. 이미 차기작도 정했다. 톱스타 주지훈, 박성웅과 함께 올해 공개 예정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젠트맨’을 주연한다.

모델 출신인 황인엽은 안방극장의 ‘라이징스타’로 급부상하고 있다. 2018년부터 웹드라마에 출연해온 그는 지난해 tvN ‘여신강림’으로 10~20대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6월 3일 또 다른 주연 드라마인 SBS ‘왜 오수재인가’를 내놓으면서 더 폭넓은 시청자에게 얼굴을 알릴 태세다. 변호사 역 서현진과 로맨스를 쌓는 로스쿨 학생을 연기한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지난달 전역 박보검, 3년연속 해군 호국음악회 진행



박보검

지난달 30일 전역한 배우 박보검이 3년 연속 대한민국해군 호국음악회를 진행한다. 9일 소속사 불려썬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박보검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2022 대한민국해군 호국음악회’에서 강아랑 KBS 기상캐스터와 진행을 맡는다. 박보검은 해군군악의장대대 문화홍보병으로 입대한 후 2020년과 이듬해 호국음악회 MC로 나섰다. 해군·미8군 군악대, 해군 홍보대와 가수 권인하, 서도밴드, 성악가 한혜열 등이 무대에 오른다.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0-03815호(2020.12.24) (COM-2020-08-32243)

내 보험! 보장빈틈 걱정없이!

꼭 필요한 보장이 없어서는 곤란하고요? 그럴 때, 이제 걱정 미세요! 큰병의 진단비도, 특약으로 생활비까지도 걱정없이! 원하는 보장만 골라 보험 빈틈을 꼭꼭 채워드립니다!

가입고객 전원, <AIA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 상세 내용 별도 안내참고

무배당 백세시대 (갱신형) 꼭 하나 건강보험

노출형 진단비

금성심근경색 진단비

임상생활비 (특약)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암에 걸린 적이 있어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나이가 많아도 (40~75세)

자병이 있어도

수술 병력이 있어도

건강보험 꼭 하나
들어야 한다면 전화주세요

080-860-6700

HEALTHIER, LONGER, BETTER LIVES

• 가입 후 첫날부터 보장(가입 2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 진단금은 최초 1회한도 단, 암 특약은 가입 후 91일부터(소액임은 첫날부터) •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100%까지 보장(갱신 시 보험료 인상 될 수 있음) • 만기 원금급이 없는 순수보장형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저축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통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연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명력자 및 고연령자 대상 상품입니다. 의사의 건강진단이나 일반계약 심사를 받을 경우 더 저렴한 일반보험 가입 가능함. • 당사의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전문 상담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이츠 2in1 와이드그릴 상담원서, 무료증정!

- 접수 후 7일 이내, 최소 50만 이상 상담 시(개인정보 제외)
- 배송은 상담원토 후 약 6주 소요(1회 한정)
- 참가자별 선착순 한정 증정 선착순 마감
- 본 상품은 소비자 기증 권리를 포함하지 않음
- 다른 경쟁으로 인해 발송될 수 있음